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거제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에서 조선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협약식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LNG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

정부 'K조선 재도약 전략' 발표
디지털 기반 생산역량도 강화
퇴직자 고용 기업 장려금 지급

계 수주 실적도 개선 중인 만큼, 이를 기회 삼아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으로 재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담았다.

올해 1~7월 전 세계 누계 발주량 3,021만CGT(표준선 환산톤수) 가운데 한국은 42%인 1,285만CGT를 수주해 과거 호황기(2006~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수주량을 기록했다. 최근 3개월간은 글로벌 발주의 47%를 수주하며 세계 1위를 달성했다.

특히 대형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과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친환경 선박 발주량의 63%와 66%는 한국이 쓸어 담았다.

정부는 당장 이런 수주 실적을 뒷받침 하려면 내년까지 8,000명 안팎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인력양성에 나서기로 했다.

선박 수주부터 설계까지는 통상 2~3년이 걸리는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

로 조선업계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력 유출이 지속된 탓이다.

정부는 기존 숙련인력의 고용 유지를 위해 '경남형 고용유지 모델'을 조선업 밀집 지역인 울산과 부산, 목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훈련비·인건비를, 지자체가 4대 보험료를 지원해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퇴직자 재고용 기업에는 월 30만~50만원의 채용 장려금을 최대 8개월간 지급한다. 생산·기술인력 양성 교육사업을 확대해 내년까지 2,660명을 양성하며, 신규 채용자 인센티브도 신설해 신규 인력 유입도 늘리기로 했다.

도장 분야 외국인 근로자 전문 취업 비자(E-7)를 신설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도 탄력적으로 확대 조정한다.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조선소에 스마트 야드를 구축하고, 기자재 생산공정도 자동화하는 등 디지털 기반 생산역량

도 강화한다. 친환경·스마트 선박 개발과 보급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LNG·혼합원료 등 저탄소 선박 기술을 국산화·고도화하고, 그다음 단계인 수소·암모니아·전기선 등 무탄소 선박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요소 기술을 적용한 자율운항선박도 2025년까지 개발한다는 목표다.

조선산업의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대부분의 중형 조선사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지난 4월 민간 경영체제에 돌입한 대선조선의 경우 5개월 만에 수주 실적이 850% 늘었다"면서 "정부는 중소형조선사와 기자재 업체가 취약한 설계·엔지니어링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대권주자 선호도 이재명 27% 경신

리얼미터 조사 자체 최고치
윤석열 24.2%·홍준표 15.6%

다자 대결구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앞서고 양자 대결 구도에서는 윤 전 총장이 이 지사에 우위를 보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2,019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직전 조사인 8월 4주 대비 2.1%포인트 상승한 27%를 받았다.

이는 리얼미터 조사의 자체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이 지사의 이전 최고치는 7월 2주차 조사 때 나온 26.4%였다.

반면 윤 전 총장은 직전 조사보다 2.3%포인트 빠진 24.2%로 나타나며 2위로 내려앉았다.

이 지사와의 차이는 2.8%포인트로 오

차범위 안이다. 리얼미터 자체 조사에서 이 지사가 윤 전 총장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한 것은 지난 2월 이 지사가 23.6%, 윤 전 총장이 15.5%를 받았을 때 이후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도 직전 조사보다 7.5%포인트 큰 폭으로 상승한 15.6%를 기록, 3위로 치고 올라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전주보다 0.9%포인트 상승한 13.7%였다.

다만 대선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윤 전 검찰총장이 이 지사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미세하게 우세했다.

리얼미터가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는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나'고 물은 결과 윤 전 총장은 39.6%, 이 지사는 38%를 받았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까지 조선 분야 생산·기술 인력 8,000명을 양성한다.

스마트 야드 등 디지털 기반 생산역량도 강화해 2030년까지 생산성을 30%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친환경·자율운항 선박의 시장 점유율을 각각 75%, 50%까지 확대해 '세계 1등 조선강국'으로 다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9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만든 'K-조선 재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세계 선박 시장 상황이 고부가·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회복 중이고, 조선업

'이낙연 캠프' 설훈 "사퇴하고 싶어"

의원직 동반사퇴 피력
당 지도부 만류에 취소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 이낙연 캠프의 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도 의원직 동반사퇴 의사를 피력했다가 주변의 만류에 뜻을 접었다.

그는 9일 사퇴 기자회견까지 예정했다가 이 전 대표와 지도부의 만류에 결국 회견을 취소했다.

설 의원은 "어제 가족들과 지역구에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면서 "내가 사퇴하면서 민주 진영과 선거 캠프를 더 결속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캠프에서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고 내가 오늘 사퇴 선언을 하면 이낙연 후보의 어제 사퇴 선언이 문헌 수도 있어서 캠프에서 최종적으로 회의해보려고 한다"면서 "현재로는 사퇴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동교동계인 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동 현충원을 찾아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이날 11시4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지만 회견 30여분 전인 오전 11시 8분 언론에 회견 취소 공지 문자를 보냈다.

설 의원은 캠프의 강력한 만류에 동반 사퇴 의사를 거둬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전 대표도 설 의원에게 반대 의 뜻을 전하며 여러 번 재고를 요청했고, 당 지도부 역시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캠프 핵심 관계자는 "설 의원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지만, 자칫 이 전 대표에

게 도움 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마음을 바꾼 것 같다"며 "사퇴 문제는 종결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설 의원에) 지도부도 만류 의사를 전달했고, 이 전 대표도 사퇴를 만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설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만일 이재명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된다면 장담이 안 된다"고 밝힌, '경선 불복'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민주주의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 원칙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다"면서 전격적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야, 대선 후보 검증 '공명선거단' 구성

단장에 김재원 최고위원
'윤 의혹' 진상규명 첫 과제

국민의힘이 9일 당내 대선 후보를 검증하기 위한 공명선거추진단을 구성하고 단장에 김재원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최고위원을 공명선거단장으로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공명선거단은 당내 후보들에 대한 여론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응하고 대선 본선 리스크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응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업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대표는 "단장은 전체적 상황을 관리하고 언론과 소통이 편하며 정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맡

기로 했다"며 "김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 언론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한 당 법률자문위원이 당 당무감사실장로부터 초안을 전달받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법률자문위에 전달된 경로를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 원문을 입수해 어떤 경위인지 살펴겠다"고 언급했다.

단장을 맡은 김 최고위원은 공명선거단 첫 임무와 관련해 "김용 의원부터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며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 의원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초 이 대표는 후보검증단장으로 김진태 전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인선에서는 일부 후보와 최고위원의 반발 가능성을 고려해 단장 후보를 추천받았고 김 최고위원이 큰 이견 없이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대선 후보 국민 시그널 면접 9일 서울 금천구 줄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국민 시그널 면접'에 참가한 면접관들이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선영 동국대 교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김준일 뉴스톱 대표, 사회를 맡은 신을 명지대 교수. /연합뉴스

우리지역 광주·전남 제품
지역인재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기업

airpurifier **DK**

스탠드형
사무실, 가정용
어린이집, 유치원 특화제품

벽걸이형
경로당, 병원, 노인복지시설
사무실, 초·중·고 학교용 특화제품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